

#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 —연변 고아곤난아동애심협회 설립... 고아곤난아동 위한 사랑의 릴레이 이어간다



연변 고아곤난아동애심협회 설립식의 한 장면 (오른쪽 두번째 강위란 회장)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동반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방과 후 숙제 지도도 하고 함께 놀이도 할 때면 더없는 행복을 느끼지요. 아이들이 밝아지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없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손에 손 잡기” 고아곤난아동 연변지역 애심협회 회장 강위란은 공익사업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4월 21일, 연변 ‘손에 손 잡기’(手牵手) 고아곤난아동(孤困儿童) 애심협회 설립식이 연길에서 거행됐다. 설립식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민정국, 연길시미성년자보호중심, 연길시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연길시심리건강자문중심 등 여러 단위,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산동성 립기시(临沂市) ‘손에 손 잡기’ 고아곤난아동심리지도봉사단 비서장 모성위를 비롯한 130여명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이 참가해 고아곤난아동들의 꿈을 위한 사랑의

힘을 모았다. 설립식에 따르면 ‘손에 손 잡기’ 고아곤난아동애심협회는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돌봄이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회단체이다. 2018년 4월 산동성 립기시에서 발기되어 6년간의 성장과 발전을 거쳐 이미 5,317명의 고아를 1대1로 돌보는 립기시 자원봉사단체의 성공적인 경험을 현재 국내 40여개 도시에 전수하여 각 도시에서 자원봉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세 이하의 고아, 사실상 고아, 정신질환 가정의 자녀, 수감자 가정의 자녀, 중대질환 가정의 자녀 등 특수 가정환경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협회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맑은 마음으로 사육 없이 책임과 담당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핵심 리념으로,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녀아들의 안전

을 보호하여 조국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애심협회에 가입한 자원봉사자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과 훈련을 받은 후 아이와 ‘1대1’로 결연을 맺고 일상적인 교류와 돌봄 가운데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아이가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협회에서는 또 아이들에게 학습을 견지하거나 기술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자립자강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원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변 ‘손에 손 잡기’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는 2023년 4월 2일에 훈춘에서 가동되어 2023년 6월 7일 주민정국에 사회단체 등록을 마쳤다. 후원 방식은 립기시의 모식을 도입하여 연변의 8개 현, 시에서 고아아동들에 대한 애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협회에는 약 22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설립식을 계기로 여러 현, 시 부문, 가두와 사회구역, 향, 진과 적극 협력해 본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정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 등 일련의 사업들을 전개하게 된다.

강위란 회장은 북경에서 호텔사업을 해오다 몇년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공익사업에 뜻이 있는 지인을 통해 이 협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협회 취지와 모식에 매료되어 체계적인 자원봉사 학습을 마친 후 연변에 해당 모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협회 자원봉사자중 부모를 잃고 힘든 어린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는데 자신이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아이들이 무엇을 수요하는지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강위란, “한 아이가 올바르게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런 아이들을 돕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연변이 온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위란에 따르면 고아나 곤난가정의 아이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보장금을 받고 있고 여러 단체와 부문에서도 아이들을 줄곧 관심하고 있지만 애심협회는 일회성 도움 혹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처한 환경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부모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장과 발전을 아이와 함께하면서 ‘1대1’로 길게는 20년 동안 아이를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날 설립식에서는 애심협회 설립을 선포하고 협회 운영 취지와 모식에 대한 소개, 자원봉사자 대표 선서식,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학습,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리전기자

## 연길, 100세 로전사 위한 특별한 연회 베풀어



“생전에 옛 전우들을 만나보고 싶 습니다.”

지난 3월초, 연길시 ‘로전사의 집’ 봉사중심 당지부 서기 겸 리사장인 서숙자(徐淑子)는 룡정에서 로전사들을 방문할 때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했던 99세의 로전사 부극훈(付克勋)을 처음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로인은 자신의 오랜 소원을 털어놓았다.

1925년에 태어난 부극훈은 본적이 산둥이고 부대에서 간호병으로 일했으며 여러 차례 공을 세워 표창을 받았다. 군대생활을 마친 후 그는 연변에 남아 의료사업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옛일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그는 함께 싸운 전우들을 한결같이 잊지 않고 있었으며 생전에 옛 전우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로전사의 집’으로 돌아온 서숙자는 수중에 있는 로전사들의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99세의 로전사 리계강(李启刚)과 96세의 로전사 리보갑(厉保甲)을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했으며 부극훈과 마

찬가지로 본적이 모두 산둥으로 비교적 건강했다. 그는 로전사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 곧바로 생방의 만남 준비에 착수했다.

4월 22일, 연길시 진학가두 문경사회구역과 연변중외자선자원봉사중심 등 단위의 도움으로 연길시 ‘로전사의 집’에서 100세에 가까운 로전사 3명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지난날을 이야기하면서 회포를 풀었다.

3명의 로전사외에도 기타 시대의 로전사들도 모임에 초청해 지난날의 함나했던 세월을 함께 떠올렸다. 로전사와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숙자는 “많은 시련을 겪은 세 로전사는 조국의 풍상고초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백년 력사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정신문명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모임은 로전사들이 녀원을 이룬 자리 의미를 뿐만 아니라 로전사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세세대대로 후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건기자



## 구수한 된장과 김치 향기 대련에 솔솔

### —대련시 금보신구 제 2회 조선족된장문화축제 개최



4월 25일, 대련시 금보신구경제문화교류학회에서 주최하고 시골집 정원과 금강학사에서 주관한 제 2회 조선족된장문화축제가 대련시 금보신구 30리보 시골집 정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우리 민족의 된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 민족 후대들이 드림없이 된장문화를 전승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축제에 대련시 금보신구문화관광국 부국장 범계권, 대련시조선족기독교문화예술관 리선화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와 기업인, 아리랑예술단, 사회 지성인들과 타민족 관광객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된장과 김치는 우리 민족의 특색 음식으로서 수백년 동안 된장문화는 드림없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축제에서 범계권은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렬히 축하하고 나서 “중국은 다민족국가로서 자기 민족의 음식문화전통을 전승하는 것은 그 민족의 발전, 나아가서는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대들이 자기 민족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련시조선족기독교문화협회 회장 장

진호와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주임 리선화도 “한계 민족의 발전은 반드시 본 민족, 제 분야, 남녀로소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변향토문화연구회 부회장이며 금강학사 대표인 김광철이 된장문화의 유래와 전통 레절에 대한 리론강의를 하고 시골집원의 김명옥 사장이 콩 고르기, 물에 불구기와 삶기, 비빔으로 묶어서 달아 매고 발효시키고 장독에 넣어 발효시키는 등 된장 만드는 방법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전수했다. 먼곳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일부러 활동 현장을 찾았을 수십명의 타민족 참가자들은 한쪽에선 찻물을 차고 삼겹살을 청석들이다 굽고 깨요, 오이 반찬을 버무리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춤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저마다 엄지를 내밀었다.

무료로 구수한 삼겹살구이이다 막걸리를 한잔 마신 70대의 왕로인은 “허허, 오늘 여기 와서 생일을 쇠었 습니다.”라고 말했다.

화장한 불철이라 행사장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칠 새 없었다.

/리삼민특약기자



##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격리석(隔离石)에 채색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창의적이며 이것을 보면 하루종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장춘 시민 왕녀사의 말이다.

최근, 장춘시 모란원은 유명한 서예와 회화 선생님을 초청해 모란원 출입구 곳곳에 있는 격리석에 알록달록한 채색그림을 그려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다. 행인들은 그림들이 너무나 창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원내 격리석 채색화는 총 66개인데 유명한 서예와 회화 선생님이 1주일 남짓한 품을 들여 장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중 인민거리 출입구에 가장 집중되어있는데 모두 31개로 동북의 모란문화를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장춘시 모란원은 격리석에 채색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공원의 플라스틱 도로를 청소하고 울타리를 칠해 산뜻하고 눈이 확 뜨인다. 이어 경관 미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제 7회 장춘시 모란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오건기자



## 연길시복지원, 양로산업 ‘견본’ 만들기에 총력



2023년 5월, 연길시사회복지원은 연변의 첫 ‘국가급 사회관리 및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점’ 칭호를 수여 받은 동시에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범단위’로 확정되었다. 상을 받은 후 연길시사회복지원은 봉사 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양로봉사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변 양로봉사산업의 ‘견본’을 만들었다

4월 18일, 연길시사회복지원 정원에서는 로인들이 바둑을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오후 시간을 즐기고 새로 바뀐 건물에서는 로인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수업을 들으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였다.

사회관리와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길시사회복지원은 건물 벽면과 소방시설을 세

로 설치하고 주방시설을 개조했으며 로인들을 위한 음악수업, 손가락체조 등 문화활동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드웨어 시설의 개조외에도 소프트웨어 건설을 강화하고 전문대학과 협력하여 간호일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모든 간호일군들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전문적이고 따뜻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연길시사회복지원 원장 장염명은 “표준화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로봉사 기초표준체계, 제공표준체계, 보장표준체계를 보장하는 것인데 현재 표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수첩을 만들어 복리원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표준체계는 전보다 더 상세하고 업무 과정과 직원 직책이 더욱 완벽하게 구분되었다. 복리원의 모든 관리와 운영 및 봉사 단계를 포함한 이 표준은 업무 과정이 더욱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투명하여 사회각계가 쉽게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된 사업 모식과 관리방법을 기타 양로기구에 보급하고 응용하여 전 주 양로봉사의 사회관리 수준과 봉사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건기자 /사진 손양

